■ '광주 시민의 발' 택시 왜 이러나

택시기사는 '움직이는 회사' '웃음' 실으면 승객 절로 는다

1 시끄러워 못 타겠어요
2 거리의 '폭군'인가
3 친절만이 살길

광주의 택시업계가 장기불황과 승객감소라는 악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친절한 서비스'로 재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하철 운행, 승용차 증가, 대리운전 등장 등 경쟁 상대가 늘어나면서, 택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기사들이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승객들이 기사들의 의욕을 꺾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사들은 '서비스 헌장'만 있고 '승객 수칙'은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은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겪는 애로사항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 운전' 인식 탈피

프랑스 파리의 경우, 택시 기사는 지리시험 통과는 물론 응급 구급법까지 습득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등도 기사 자격을 전과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갖가지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기사들이 단순히 운전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승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택시 업계의 후진적인 경영 형태도 문제다. 택시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경영과 운영,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운전사가 책임진다. 운전사가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경영자금이 되며, 서비스나 마케팅도 결국 운전사의 몫으로 떠맡겨진 실정이다.

사업자의 경영 압박은 곧바로 운전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급여가 줄어든 운전사는 수입금을 늘리기 위해 난폭운전·무단합승 등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해 승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친절한 서비스' 무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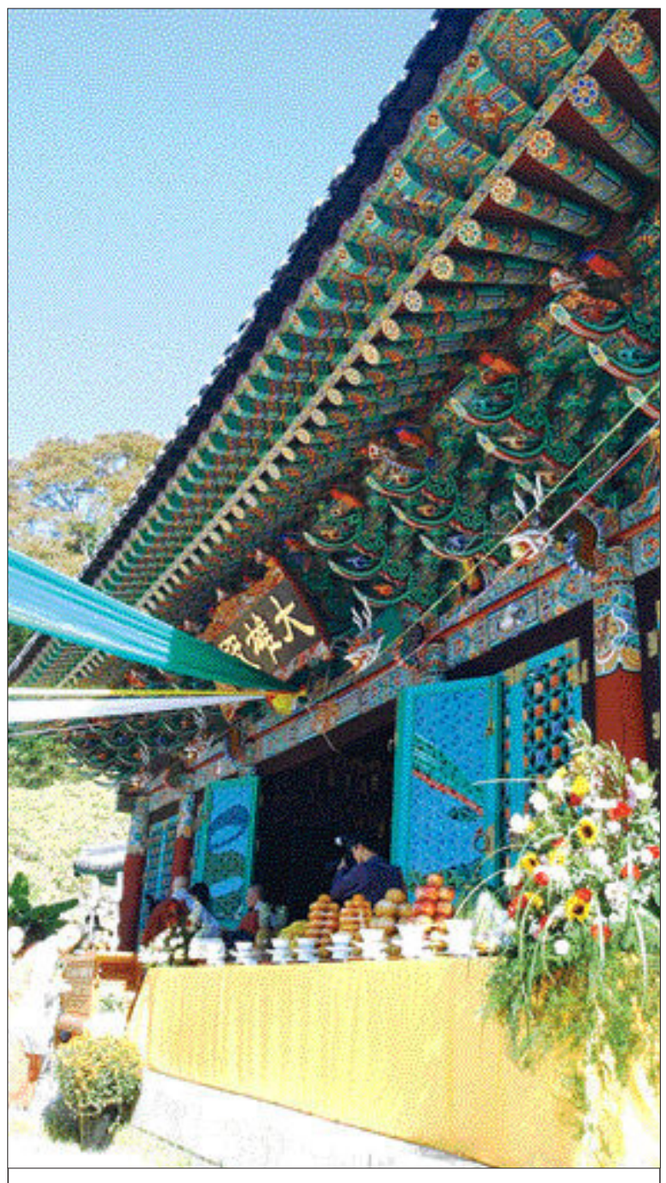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택시의 증차를 막는 '택시 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립해 있는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통합 및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광주시 등 행정당국도 올바른 택시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친절한 기사에게는 '상'을, 불친절한 '벌'을 내리는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에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기사가 소속된 법인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처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소음 신고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참으라"며 민원인을 타박하기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친절한 택시문화는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도 기사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새롭게 단청한 증심사 대웅전

외부 단청(丹靑) 불사를 마친 무등산 증심사의 대웅전이 24일 공개됐다. 증심사는 이날 오전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廻向)및 부처님 점안식(點眼式)을 가졌다.

증심사 단청에는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오방색과 은은한 빛깔을 적절히 사용돼 전통미와 세련미를 보여줬다. 대웅전 외벽에는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18불보살을 모셨다. 단청은 승경불교미술원 정경문 원장이 지난 2월부터 맡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증심사는 2008년께 대웅전 내부에 대한 단청불사도 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시아 문화콘텐츠 빛고을에 모인다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내일 개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이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산업전은 150개사 250 부스로 구성되는 본 전시회와 동아시아방송PD포럼, 국제한류문화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문화콘텐츠 수출상담회, 문화콘텐츠기업 투자설명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본 전시회의 영상 콘텐츠관은 CJ미디어 등 71개사 161부스로 구성돼 대한민국의 우수한 드라마·음악·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관은 SONY 등 8개사(32개 부스)가 HD장비 기술 등을 시현한다.

또한 산학협력관은 각 대학 및 지자체들이 참여해 문화 콘테츠학과 홍보 및 관련기관의 문화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GTV 등 6개사가 참가한 해외관은 각 TV방송사 및 자사의 콘텐츠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아동학습 잡지 및 50종의 잡지 발행과 기타 문화사업을 하는 소학관은 포켓몬스터를 상영한다.

그리고 한·중·일 3개국(20개 부스)이 참여하는 한·중·일 우수 TV 작품관은 18편의 우수작품을 상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각 나라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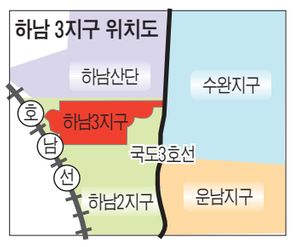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

'하남 3택지' 본격 개발 18만여평 2010년까지

광주시는 24일 광산구 하남·흑석·산정동 일원 18만4천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10년까지 총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하남 3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 3지구는 ▲주거용지 9만9천평(단독 8만6천평·공동 1만2천평)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7만5천평 ▲도로 4만평 ▲녹지 2만평 등으로 개발된다.



〈위치도〉

택지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다. 환지방식은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일정면적을 부담(감보)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잔여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평균감보율은 50% 이하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습관성 도박 치료 해줍니다

한국마사회, 광주에 상담센터·위탁병원

한국마사회(KRA) 유캔센터(한국습관성도박 연구센터·이하 도박연구센터)는 최근 광주에 습관성 도박 상담센터 및 위탁진료병원을 지정, 운영하기 시작했다.

도박연구센터가 지정한 상담센터는 광주심리상담센터(062-527-3403), 위탁진료병원은 광주성요한병원(062-510-3114)이다.

습관성 도박의 예방·홍보와 습관성 도박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해 지난 2003년부너 서울과 수도권에 도박연구센터를 직접운영해온 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 부산·경남과 제주지역으로 습관성 도박 상담치료 네트워크를 1차 확장한데 이어 최근 광주를 비롯한 대구, 대전에도 센터를 개설, 전국적인 치료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습관성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나 직계 가족이면 누구나 가까운 상담센터나 위탁진료병원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비용전액을 부담하는 무료 상담·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080-815-119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ucancenter.or.kr)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